

KOICA는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에서 2004년 쓰나미 여파로 무너진
학교보건환경의 재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보건실 기자재와
의약품 지원, 건강보건교육 등을 통해 209개 초등학교 학생 4만 명 이상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보건의식 수준을 제고했습니다.
KOICA는 2020년까지 지속가능한 학교보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보건교사와 보건소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OICA
한국국제협력단

KOICA INSIDE 수단 소외열대질환 퇴치 앞장선 홍성태 서울대 교수
KOICA VIEW 시에라리온에 '깨끗한 물' 선물하는 KOICA
OVERSEAS KOICA 필리핀 아나오 주민들의 희망이 된 '꽃 중의 꽃'

지구촌 가족

2018. Autumn
Vol. 10
World's Friend KOICA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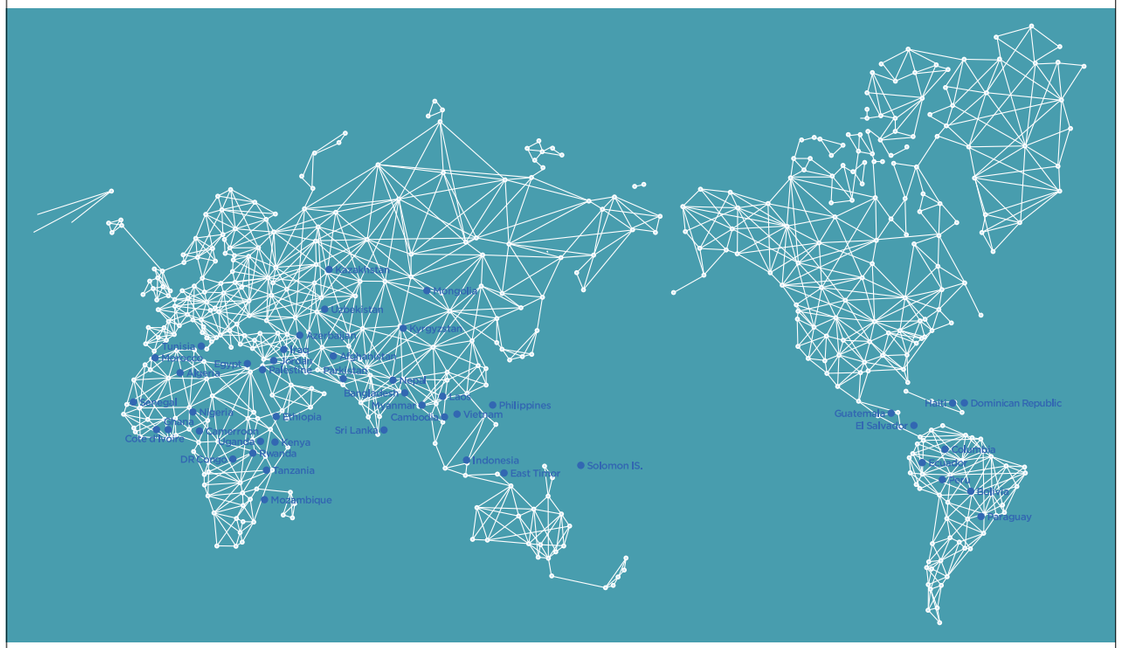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INK ODA, WITH KOICA
WWW.KOICA.GO.KR

ABOUT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우리나라는 여러 부처에서 추진해오던 대외무상 원조사업을 일원화하여 효율적, 효과적으로 ODA 사업을 실시하고자 1991년 4월 외교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으로 KOICA를 설립하였습니다. KOICA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KOICA는 보건,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해외봉사단 파견, 글로벌연수, 민관협력, 해외긴급구호&국제기구협력 등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OICA는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NGO, 기업, 학계,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범국민 참여 개발협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OICA가 추진하는 개발협력사업은 지구촌 빈곤퇴치와 환경, 인구, 질병, 인권 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글로벌 인재양성과 우리 기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며,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CONTENTS

2018. Autumn / Vol. 10

KOICA INSIDE
코이카 人사이드

04
수단 소외열대질환 퇴치 앞장선
홍성태 서울대 교수
"1개 군으로 시작된 사업, 주 전역으로 확대해 질병 예방"

08
캄보디아 김호경 체육교육 봉사단원
텅 빈 운동장에 체육관 만들고 예비교사 양성까지

10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김용남 봉사단원
한국 대학과 MOU 체결 주선, 젊은이들 한국 유학 꿈 생겨

12
우즈베키스탄에서 보건활동 펴는
김우태 봉사단원
"카르시 300만 명 주민의 이 닦기 선생님 됐어요"

14
파라과이에서 '사랑해 KOICA' 활동 중인
5인의 전사들
소외 복지기관 돌며 벽화봉사, 편안한 이모·손녀로 기억되길



KOICA VIEW
코이카 뷰

16
시에라리온에 '깨끗한 물' 선물하는 KOICA
보건시스템 높이고 양국 우호관계 기여

19
인도네시아 초등학생 건강증진사업
쓰나미로 무너진 학교보건환경, 다시 일어서다

22
캄보디아 빈곤층 의료접근성 및
서비스 향상 사업
공공 의료서비스 UP! 빈곤층 접근성 UP!



OVERSEAS KOICA
세계 속 코이카

24
KOICA와 한국발명진흥회의 필리핀
민관협력 프로젝트
'꽃 중의 꽃'이 마을 사람들의 희망 되다

28
카메룬 전자조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여

32
캄보디아 뚜얼슬랭 박물관 디지털화 사업
'킬링필드의 상징'에서 '평화의 구심점'으로

WHAT'S ODA
ODA 알아보기

34
에티오피아 전자제품 서비스 전문가 키우는 'LG전자'
"차세대 맥가이버 되어보지 않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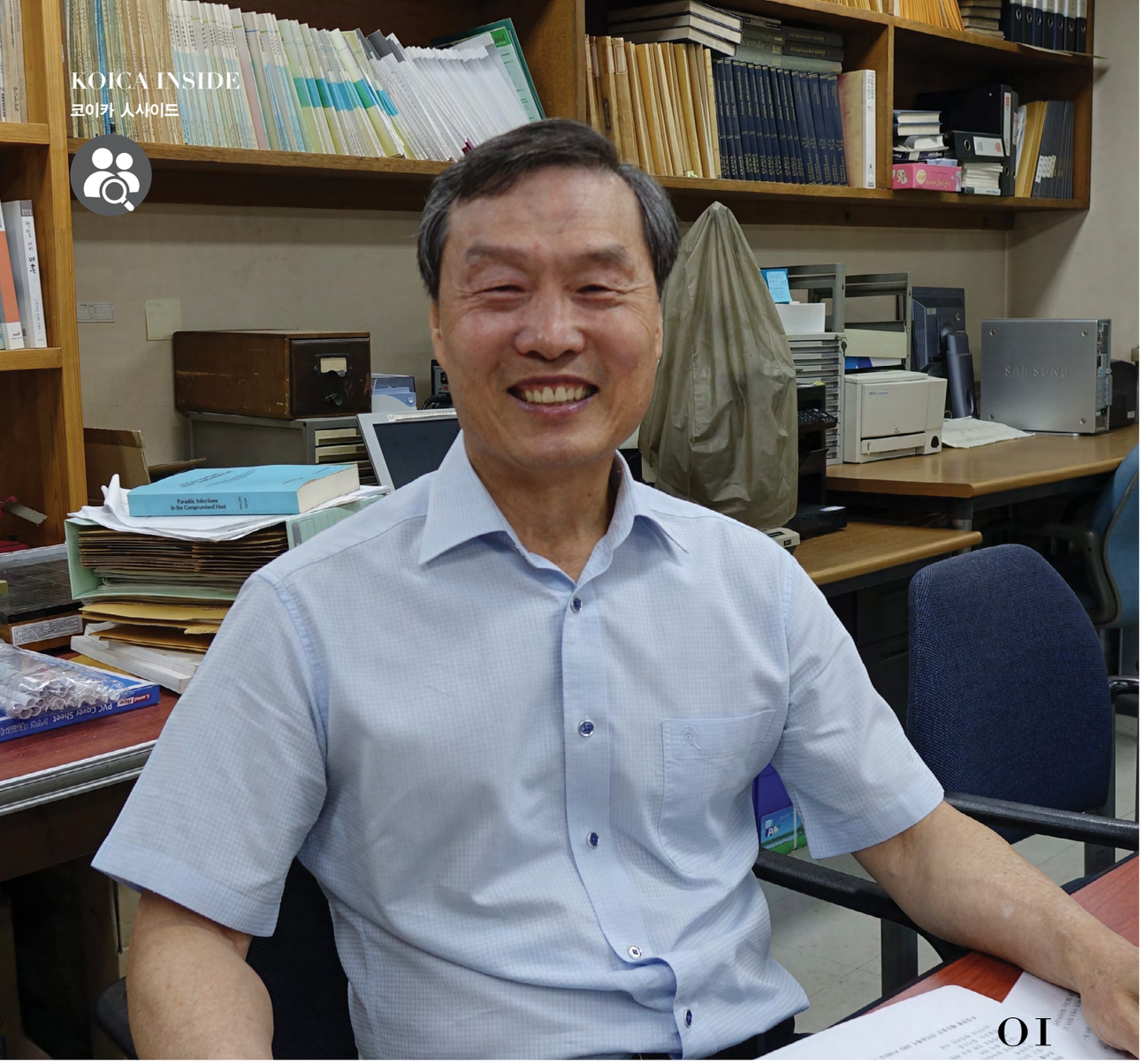
37
방글라데시 오지섬에 인터넷 통신망 구축한 'KT'
IT 파워로 섬 주민 소득향상 돕다

40
르완다 커피 산업 발전 돕는 '아름다운커피'
현지 커피 농부에게 향 짙은 웃음 선물

World's Friend
KOICA

발행인 이미경 **등록일자** 1994년 12월 5일 **발간등록번호** 소통 2018-02-163
발행일 2018년 10월 8일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462-833)
전화 031-740-0114 **팩스** 031-740-0655 **홈페이지** www.koica.go.kr
기획·편집 KOICA 국민소통실 **제작**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조광프린팅

KOICA 뉴스레터 〈지구촌가족〉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임의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코이카)은 대한민국의 대외무상원조를 전담하는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합니다.



01

수단 소외열대질환 퇴치 앞장선 홍성태 서울대 교수

“9년 전 백나일주 1개 군에서 시작한 사업, 주 전역으로 확대하고 감염지도도 만들어”

소외열대질환은 사하라 이남과 동남아시아 등 열대지역 저소득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열대풍토병이다. 에이즈나 결핵과는 달리 열대풍토병은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소득국가의 주민을 위협하지 않으므로 기금모금이 원활하지 않고 국제사회로부터도 ‘소외’받는다. 때문에 WHO(세계보건기구)는 이 열대풍토병을 ‘소외열대질환’이라 명명하고 이를 위한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단의 소외열대질환 퇴치를 위해 9년간 헌신한 이가 있다. 바로 홍성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교수다.

글 박찬응(KOICA 국민소통실 인턴기자)
사진 홍성태(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교수)

Q_주혈흡충 감염질환은 국내에서 생소한 질환이다. 질환과 사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한다.

“주혈흡충증(Schistosomiasis)은 우리나라엔 없지만 아프리카 현지에선 Bilharzia로 부르는 기생충성 열대 풍토병의 하나다. 유행지의 호수나 강물 속에 있는 달팽이에서 자란 주혈흡충 꼬리유충이 물속에 있다가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오므로 물과의 접촉이 사람 감염의 주요 경로다. 성충은 소장 또는 방광의 정맥으로 가서 병변을 만드는데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이 앓고 있다. 감염 즉시 증상이 나타나진 않지만 6~12개월이 지나면서 발열, 설사, 혈변, 혈뇨, 심하면 간경화나 방광암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 질환을 퇴치하기 위해 수단에서 9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단 백나일주의 퇴치사업(집단 구충과 식수사업 위주)과 전국 주혈흡충과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에 의한 분포지도 제작이 현재 사업의 주 내용이다. 올해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출처 : WHO_Schistosomiasis Fact sheets_http://www.who.int/en/news-room/fact-sheets/detail/schistosomiasis

Q_사업이 시작된 배경은 무엇인가?

“사업 시작 전부터 수단 정부는 이 질병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연방보건부에 ‘주혈흡충 및 소외열대질환 프로그램(Schistosomiasis and NTD Program)’이라는 작은 조직을 두어 전국 단위 사업을 주관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는 방 하나에 담당 공무원 한 명만이 있었다. 이 조직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조를 관리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다른 외원 사업이 전혀 없이 점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수단 정부에서 먼저 주혈흡충증 퇴치 사업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당시 수단에 ‘GMC’라는 현지법인 제약회사가 국산 주혈흡충 치료제인 프라지콴텔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병국 주수단 대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수단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수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제안해 시작하게 되었다.”

0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연구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홍성태 교수
02 백나일주 알히뎁 마을에서 초음파 검진을 하고 있는 홍성태 교수

Q_어린이들이 질환에 감염되면 어른보다 심각한 증상을 보인다고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른들은 어려서부터 주혈흡충에 감염되고 낫고를 반복하면서 면역이 생겨 감염이 줄어든다.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감염이 누적되면 중감염으로 이어져 더욱 심각한 증상을 겪게 된다. 또한 주혈흡충에 감염되면 장간맥 정맥이나 방광 정맥이 터져서 혈뇨나 혈변을 본다. 어른들의 체중은 60~70㎏인 반면 어린이들은 20~30㎏이므로 상대적으로 쉽게 빈혈이 생기고, 성장기를 거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영양실조가 온다.”

Q_수단 주혈흡충·장내기생충의 효과적 퇴치를 위해 3차 사업 기간 동안 감염지도를 제작했다고 알고 있다. 감염지도는 어떤 과정을 통해 제작했나?

“2017년 1~2월 8주 동안 감염지도를 만들기 위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현지 인력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현지 인력들을 관리와 실무 영역으로 구분하여 1년 동안 실태조사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했다. 관리 인력들에게는 통계적 대상자 선정·설문서 작성·자료 정리 같은 교육을 진행했고, 주별로 한 명씩 선정해 서울에서 초청연수도 실시했다. 실무 인력에게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대·소변검사의 기술적 교육을 중점으로 진행했고 이를 위해 현지에서 워크숍도 여러 번 개최했다. 동시에 가검물* 채취와 운송, 검사를 위한 물품도 차질 없이 준비했다.
이렇게 양성된 현지 인력들과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광주혈흡충은 150만 명, 장(腸)에 사는 만손주혈흡충은 40만 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제는 지도를 토대로 수단 담당자들이 소외열대질환



02

퇴치 로드맵을 만들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번 전국적인 실태조사 수행을 통해서 수단 보건부와 주정부 담당자들은 자신감을 얻었고, 능동적인 자세로 사업에 임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검물 : 병균의 유무를 검사하기 위하여 거두는 환자의 배설물.

Q_3차까지 진행된 사업을 간략히 설명하면?

"1차 사업은 2009년부터 3년간 수단 백나일주 1개 군에서 시범으로 진행됐다. 정수장 1개를 건립해 대상 지역 감염률을 28.5%에서 13.5%로 낮추었고 질환 퇴치 매뉴얼도 개발했다. 2차 사업은 2011년부터 4년간 진행되었는데 사업 지역을 백나일주 7개 군으로 확대하고 초음파 검진, 투약, 교육을 진행했다. 그 결과 1차 사업지에서 감염률이 13.5%에서 9.5%으로 더 감소했다. 3차 사업은 2016년부터 3년간 진행되고 있으며 시범 사업 지역을 백나일주 전역으로 확대하고,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주혈흡충과 장내기생충 감염지도'를 제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Q_사업에서 교수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사업 전체를 기획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지휘자 역할을 했다. 또한 사업 현장에서는 사령관 역할을 했다. 현장에 가보면 절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그럴 때 책임자가 필요한 결정을 해주면 사업의 차질이 많이 줄어든다. 또 2차 사업부터는 직접 방광 초음파검사를 수행하고, 사업



01, 02
2010년 12월 선천성 뇌탈출증에 걸린 모하메드의 수술 전 모습과 2011년 6월 서울대병원에서 2개월간 머물며 수술받고 회복한 후의 모습

03
2018년 2월 7일 백나일주 마라배학교를 방문, 초음파 검진을 받은 학생들과 함께. 마라배학교는 위생이 열악해 화장실을 짓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상 환자뿐만 아니라 진료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이진료를 했다. 또 우리가 수행한 사업 자료를 정리해 7편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학술활동과 함께 국제적으로 우리 사업을 국제보건기구(WHO)에 알리고 다른 국제기구와 연결해주는 일도 했다."

Q_사업을 통해 거둬들인 성과는 무엇인가?

"먼저 논문 7편을 낸 것을 꼽고 싶다. 물론 사업 결과를 굳이 논문으로 발표하지 않고, 보고서로 끝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담당자에게만 보고가 되고, 담당자가 바뀌면 사업 결과가 잘 공유되지 않는다. 하지만 논문으로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에 아카이빙 해놓으면,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임팩트 측면에서 보고서와 비교할 수 없다. 교수가 사업에 참여하면 반드시 결과를 학술지에 기록하는 것이 사업의 가치를 더 크게 높이는 일이다. 일례로 사업 도중에 WHO를 통하여 사업 내용을 파악한 영국의 NGO SCI*가 2017년부터 매년 심사를 통해 연간 100만 달러의 구충사업비를 수단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원금은 주혈흡충증 질환퇴치를 위한 집단투약에 쓰일 예정이다. 이는 전국 학교 대상 투약이 가능한 규모이다. 이러한 SCI의 지원은 우리 사업의 결과를 국제적으로 홍보하여 얻은 아주 좋은 성과다."

*SCI(Schistosomiasis Control Initiative) : 총 17개국에서 주혈흡충 퇴치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영국 주도 국제 NGO.

Q_사업 중 생긴 에피소드를 소개해준다면?

"2차 사업을 할 때, 소외열대질환 환자를 검진하기 위해 초음파기를 들고 사업 지역 마을로 들어갔다. 초음파기를 든 한국 의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소외열대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도 많이 몰려들었다. 먼저 사업 대상 환자들을 진료한 후 일반 환자를 진료하고 있던 도중 선천성 뇌탈출증에 걸린 아이를

만났다. '모하메드 아바키르'라는 아이었는데 선천적으로 앞쪽 두개골에 구멍이 생겨서 뇌가 그 구멍을 통해 피하로 흘러내려 눈과 코를 덮고 있었다. 아이는 학교는 물론이고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아이를 서울로 데리고 와서 신경외과 수술을 받게 했고 그 결과 미남이 돼 돌아갔다. 이런 일들이 쌓여가며 수단의 마을 주민들과 신뢰가 돈독해졌다. 원래 2차로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1700명의 수단 마을 주민들이 사업을 지속해달라고 대사관에 청원한 덕분에 3차까지 사업이 연장되었다."

Q_사업을 수행하던 도중 어려움을 겪었던 순간이 있다면?

"수단은 알카에다에 훈련기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고 경제제재를 당했다. 이 때문에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가 되지 않아 사업비 몇 백만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날라야 했다. 경찰이나 군인 동행 없이 우리 사업단원들이 고액의 현금을 나르려니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운송 후 보관도 여간 조심스럽지 않았다. 물론 사고 없이 잘 해결했지만, 돈을 전달하는 문제조차도 우리에게는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또 사업 수행 기간 중 수단이 내전을 겪으며 2012년에 수단과 남수단으로 분리됐다. 우리 사업지 중에 남수단과 맞닿은 국경 지역이 있는데, 남수단에서 수단으로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유입되었다. 우리 사업팀이 전부 투약해서 감염률을 2~3%로 낮췄는데, 남수단에서 감염률이 40~50%에 달하는 난민들이 넘어와서 사업 지역에 재감염원으로 작용해 어려움을 일으켰다. 결국 남수단 이주민들에게 난민캠프에서 구충약을 투약한 이후 일반 마을로 넘어오게 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해야 했다."

Q_이 사업은 아프리카에서 진행한 사업 중에서도 꽤 성공한 사업으로 꼽힌다. 성공 요인이 있다면?

"먼저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에서



전문가 의견을 잘 수용하여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주었던 것이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구충 사업을 단기간에 진행하는 것은 보여주기식밖에 되지 않는다. 현지인의 자발적인 퇴치사업 동기를 유발하고 교육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재감염이 효과적으로 줄어드는 데에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장기간 일관된 방향으로 사업을 지속하였던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또 우리 사업단을 구성한 전문가와 실무진에 역량 있는 인력이 참여하고 팀원들이 원만한 관계로 좋은 팀워크를 유지한 것도 주요한 원인이었다.

Q_이번 사업의 의의와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WHO를 포함한 국제 공여기관은 효율적인 질병퇴치 사업을 원하지만 아프리카 내 사업은 효율도 낮고 성과가 지속적이지 않아 사업을 중단하면 바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 사업은 전국 단위 현지 담당자들의 자신감과 열의를 배양했고, 전국 단위 근거 기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병관리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 사업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아프리카 사람들이 스스로 주도해 장차 질병퇴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로 스스로 나서게 된 것은 아프리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수단 사업이 향후 아프리카의 감염질환 관리 모델 유형으로 자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우리나라가 수단 자국인들이 주도하는 소외열대질환 퇴치사업의 로드맵 실행 초기사업까지 지원해 스스로 수행하는 사업기반을 제공한다면, 인력 훈련에 이어 시스템 구축까지 지원하는 질병퇴치 국제지원 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18.AUTUMN

김호경 WFK 체육교육 봉사단원의 캄보디아 적응기

운동시설도 없고 용품도 없는 '황무지' 체육관 만들고 예비교사들을 가르치다

2017년 건기가 중반에 접어든 3월 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나에게 다가온 첫 번째 걱정은 '이 무더운 나라에서 체육교육 단원으로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하지만 무더위보다 더 큰 문제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오스 국경 부근 낙후지역 초등교원 양성소로

현지 적응훈련 기간 중 각 단원들에게는 근무기관을 탐방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7시간 동안 승합차를 타고 앞으로 내가 2년간 근무하게 될 라오스 국경선 부근에 있는 스텅트렝 초등교원 양성소를 처음 방문했다. 이곳은 캄보디아에서도 가장 낙후된 스텅트렝, 몬둘키리, 라타나키리라는 세 개의 지역(Province)에 있는 초등학교로 가게 되는 교사들을 양성하는 곳이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보고 싶었던 것은 앞으로 2년간 수업할 운동장이었다. 잠시 둘러보니 운동장은 풀이 무릎까지 자라 있었으며 축구골대는 녹슬고 다리가 부러져서 곧 넘어질 것 같았다. 또한 농구대는 다 허물어진 벽면에 농구 림 하나 달랑 붙어 있었으며, 공들은 낡고 바람이 빠져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게다가 일 년 내내 강렬한 햇빛, 폭염 그리고 장기간의 우기 속에서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며칠간 체육수업을 참관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불가피하게 날씨의 영향으로 체육수업이 수시로 다른 수업으로 대체되고 있어 일관되고 체계적인 체육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상태로 예비교사들이 2년간 교과 교육을 통해서 체육교과의 전문성을 신장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KOICA 지원받아 축구공 등 용품 구입해서 수업 활용

탐방 기간이 끝나고 복귀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육수업에 필요한 활동용품을 구입하고, 일 년 내내 전천후 수업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했다. 오제이티(OJT · On the Job Training) 보고를 할 때 파견기관의 이런 상황을 진지하게 경청한 사무소장님께서 '김 선생님! 사무소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됐다.

활동용품은 파견기관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 1250달러가량의 비용으로 축구공 외 11가지 용품을 구입해 바로 수업에 활용했다. 활동용품을 신기하게 보며 수업시간 내내 즐거운 모습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참 행복했다. 그리고 날씨와 상관없이 전천후 체육수업을 위해 현장에 맞는 체육관을 짓기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캄보디아 지인들의 도움으로 이미 지어진 체육관이나 KOICA 현장사업으로 지어진 체육관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부실시공으로 이미 무너진 체육관도 있다는 것을 듣고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체육관 건축을 위해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으로 견고하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농구장 크기의 체육관을 건축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시공업체를 찾아나섰다.

새로 지은 체육관 통해 체육교과의 전문성 키워

먼저 스텅트렝에서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건축업체를 찾았으나 시공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프놈펜까지 편도 7시간, 왕복 14시간을 감수하며 여러 번 오가면서 건축업자를 만났다. 건축업자의 한결같은 반응은 '건축현장이 거리가 너무 멀고 3만 달러의 비용으로는 제안한 체육관을 도저히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한 건설업체와 연결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다행히 사장님이 학창 시절에 운동선수를 한 경험과 현장사업의 필요성을 잘 이해해서 H빔 기둥으로 높이 7.5m, 가로 18m, 세로 32m 크기에 천장만 있는 체육관을 3개월간 시공해 2018년 1월 25일 완공했다. 체육관에 꼭 필요한 농구대, 배구대, 풋살 골대, 배드민턴대 등에 대한 비용은 학교 측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나 학교 예산 상황이 열악해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다. 그때 KOICA 사무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다.

01 김호경 KOICA 체육교육 봉사단원
02 KOICA 현장사업으로 체육관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
03 새로 지은 체육관에서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받고 있다

완공된 체육관에서는 매주 체육수업 12시간과 방과 후 3개의 동아리(농구 · 배구 · 풋살) 지도가 이뤄지고 있다. 교생실습 때도 부속초등학교 체육수업을 체육관에서 진행해 나 역시 참관하며 협력수업에 동참했다. 앞으로 예비 초등교사들의 체육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체육관에서 수업 실연과 연구수업을 통해서 교과의 전문성을 더욱 신장시킬 계획이다.

지난 5월에는 처음으로 체육관에서 교내 학반별 배구대회를 개최했는데, 학생들의 자율적인 운영하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향후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고 근무할 때 현지에서 직접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KOICA 캄보디아사무소

마지막으로, 한국 교육법 93조는 초등교육의 목적을 '초등교육은 어떠한 편중교육(偏重敎育)이나 준비교육(準備敎育)이 아닌, 아동의 원만한 전인성장(全人成長)을 위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 정서적 또 지적으로 균형된 성장 · 발달을 기할 수 있는 기초교육이라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수업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이 체육교과의 전문성을 높이고, 1~2년 후 각자 발령받은 초등학교에서 전인적인 교육을 할 것을 생각하면 KOICA의 봉사단원으로서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또한 국위선양에도 기여한다고 생각돼 매우 감사하다.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KOICA 캄보디아사무소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글 · 사진 김호경(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원)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김용남 KOICA 봉사단원

"한국 대학과 MOU 체결 주선 젊은이들 '한국 유학' 꿈 생겨"

제2의 인생을 봉사활동을 하며 의미 있게 살고자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 봉사단원에 지원한 김용남 단원. 그는 우리 교민이 많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방과 후 교육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정보가 부족했던 현지인들에게 김용남 단원은 한류의 전도사로서 문화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Q_자기소개 및 봉사단원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

"34년의 오랜 공직생활을 끝내고, 봉사하는 삶을 찾던 중 KOICA에서 파견하는 봉사단원으로 실크로드의 중심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카르시국립대학에 왔다. 일주일에 약 26시간, 수준에 따라 모두 3개 반으로 편성해 초급, 초·중급, 중급반으로 구분해서 카르시국립대학 학생들, 카르시 지역 고등학생이나 졸업 후 취업을 준비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소위 '고려인'이라 부르는 우리 교민이 제일 많은 중앙아시아 중심국가에 관심을 갖던 중 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일을 하면서 봉사하게 된 것을 스스로 매우 만족하며 기쁘게 생각한다."

Q_방과 후 교육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어학과 설립추진에 대한 계획은 없는가?

"한국어 전공학과 설립 혹은 제2외국어 지정에 대해 학교 당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한국어 전공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전망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 중이다. 학교에서는 장래 한국어 전공학과 추진에 대비해 KOICA 파견 초기에 이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운 학생을 직원으로 채용해 KOICA의 업무(통역 등)를 지원하고 있다."

Q_국립 한밭대학교와 우즈베키스탄 카르시국립대학교와의 MOU 체결에 앞장섰다고 들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1년 이상의 공백 기간을 지나 한국어 교육을 재개한 이후, 현재 카르시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 전역에 한국어 교육 열풍이 다시금 불고 있다. 또한 카르시국립대 학생들의 한국 유학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지만, 한국 대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자매결연을 해 교류하고 있는 한국의 대학도 전무했다. 마침 한밭대에서도 글로벌 인재 육성과 세계 수준의 선진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명제를 갖고 있어 한밭대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7년 11월 한밭대 총장 및 관계자들이 카르시국립대를 방문해 MOU를 체결하게 됐다."

Q_MOU 체결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양측 모두 교류의 필요성을 공감한 상황이어서 예전 중국인민대학 유학 시절 알게 된 한밭대학교 국제교류원장 강희정 교수와 자매결연 추진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Q_MOU 체결의 성과는?

"한국 대학 중 최초로 국제 교류 협정을 체결했으며, 작년 자매결연 체결 후 올해 6월에 양 대학 간에 교환학생 및 교직원 교류에 관한 MOU를 추가로 체결했다. 이로써 올해 하반기부터 5명가량의 학부과정 교환학생을 비롯한 석사과정 학생의 파견이 진행될 예정이다."

Q_MOU 체결로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우즈베크에는 한국 유학에 대한 정보나 교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자매결연은 카르시국립대 학생들의 한국 유학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교류 활동으로 양성된 인재들이 한·우즈베크 간의 이해를 통해 양국의 발전에 앞장서는 글로벌 청년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Q_현재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교육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혹은 보람 있었던 에피소드는?

"올해 초 KOICA 출입국 관리행정 역량강화 과정으로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이 지역 출입국관리소장이 나에게 '한국 견학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며 '한국의 우수한 제도를 우즈베크에 접목하길 원하니 직원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들의 의지가 대견해 결국 그의 청을 흔쾌히 수락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01


02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국가와 사회로부터 많은 것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이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국위를 선양하고 남에게 베풀고 봉사하는 즐거운 생활을 원한다면 KOICA와 함께하길 추천한다."

01
지난해 11월 국립한밭대학과 카르시국립대학교 관계자들이 자매결연을 추진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김용남 한국어 분야 봉사단원
02
김용남 봉사단원(왼쪽에서 네 번째)이 카르시국립대학교 한국어반 학생들과 생일파티를 하고 있다

Q_현재 활동하고 있는 곳에서의 한국어 분야 현황은? 문제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가?

"카르시국립대학은 60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 카슈카다리야주의 주청이 있는 카르시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KOICA 한국어 단원이 파견된 곳이다. 2년간 파견 공백이 있기도 했지만, 한국어 교육을 다시 시작해 지금은 학기마다 2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수강하는 등 한국어와 한류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방과 후 수업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수업을 포기하는 학생도 많아 안정적인 수업 운영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Q_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매 학기마다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등 한류의 전도사로서 국위를 선양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날 연해주에서 강제로 추방당해 중앙아시아를 유랑할 때 가장 따뜻하게 고려인 동포들을 맞이하고 정착을 지원해준 고마운 우즈베크인들의 발전을 위해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Q_KOICA 봉사단원에 지원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받기만 하고 남에게 줘보지 못한 삶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국가와 사회로부터 많은 것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이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국위를 선양하고 남에게 베풀고 봉사하는 즐거운 생활을 원한다면 KOICA와 함께하길 추천한다."

글 · 사진 김용남(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원)

우즈베키스탄에서 주민들의 구강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우태 봉사단원의 이야기는
KOICA 웹진 〈지구촌가족〉 2018년 9월호 '세계 속 KOICA'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webzine.koica.go.kr/201809/content3_10.php?code=201809_010310



01



02

01
카르시에서 유일한 종합대학인 카르시국립대의 '부자가 되는 지혜로운 건강한 생활습관' 수업에서 3.3.3 이 닦기 교육을 마치고 학생들과 김우태 봉사단원이 '사랑해요! KOICA'를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02
지난 6월 1일 우즈베키스탄 어린이날을 맞아 김우태 봉사단원이 박애의 집 명예이사에게 장애아동들이 사용할 치약·칫솔을 전달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보건활동 펴는 김우태 KOICA 봉사단원

"카르시 300만 명 주민의 이 닦기 선생님 됐어요"

어릴 때부터 양치질만 잘해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카르시 지역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교육을 받지 못해 치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에 김우태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 봉사단원이 앞장서 카르시 주민들의 구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Q_자기소개 및 봉사단원에 지원한 동기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33년간 보건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을 살려 해외 개발도상국의 보건 분야에 기여하고 싶었다. 봉사활동을 하며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KOICA 봉사단원에 지원했다. 지금은 카르시국립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건·건강 교육을 지도하며 지역 보건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Q_카슈카다리야주 지역 방송에 출연했다고 들었다. 계기가 무엇인가?

"카르시 지역에서 다양한 연령의 현지인이 노란색 금으로 이를 보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구강 보건 교육의 절실함을 인식하게 됐다. 때마침 자파르존 로지예프 주지사가 카르시국립대를 방문해, 주민들의 치아 결손과 의료비 과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강 보건 교육을 건의했다. 이를 계기로 카슈카다리야주 정부 TV 방송프로그램 〈국민과 마주보는 대담〉에 출연하게 되었다(2018년 3월 1일 방영)."

Q_출연한 방송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KOICA 봉사단원으로 프로그램에 30분 동안 출연했다. 아나운서가 치아 건강을 위한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면 자세한 답변과 구강모형을 이용한 3.3.3 이 닦기, 잇몸 건강을 위한 마사지 등 구강 보건 교육을 진행했다. 310만여 명의 카르시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 그 뒤로 어린이날을 맞아 프로그램에 2회 출연했다. 이 방송에는 매월 카르시국립대 학생들과 방문하는 중증장애아동 복지시설인 박애의 집에 치약과 칫솔을 전달하며 구강 보건 교육과 춤, 노래로 흥겨운 시간을 가지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Q_방송 및 봉사활동에서 구강 교육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3.3.3 이 닦기를 실천한다면 조기 치아 결손을 예방할 수 있어, 카르시 주민들의 잇몸병으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시간적 어려움을 크게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치아 건강관리로 심장병과 치매의 조기 발병률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구강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Q_방송 출연 이후 주민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나?

"방송이 나간 이후로 알아보는 현지인들이 많아졌다. 학교와 시장,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칫솔질과 잇몸 마사지 흉내를 내면서 말을 걸어온다. 방송국에 근무하는 직원 한 분이 '평소 잇몸이 안 좋아서 불편했는데, 잇몸 마사지하는 법을 방송에서 보고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다. 고맙다'고 말하기도 해 기억에 남는다."

Q_현재 활동하고 있는 곳에서의 보건 분야 현황은? 문제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가?

"카르시 지역 내에는 가족·아동 보건소, 각급 병원 등 공공의료시설과 대학교 내 의료원이 있지만, 의료장비와 같은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2000명의 기숙사 학생 진료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수질검사가 안 된 지하수가 세면대에 공급되고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로 여겨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보건 현황을 파악한 후,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보건 교육과 위생시설 개선 등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Q_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카르시국립대학교에서 '부자가 되는 지혜로운 건강한 생활습관' 수업을 강의하며 보건교육사를 양성하고 있다. 2019년 5월까지 31명의 학생이 카슈카다리야주의 지역사회 보건교육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역 보건기관과의 연계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사회 보건 향상을 도모하려고 한다."

Q_KOICA 봉사단에 지원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지난 1년 2개월의 해외봉사 활동은 많이 배우고 얻었던 인생의 전환점이다. 해외 생활의 어려움과 계획한 봉사활동을 실현하기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역경을 극복해야 한다. 봉사단원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봉사활동을 끈기 있게 한다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글 · 사진 김우태(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원)

파라과이에서 '사랑해 KOICA' 활동 중인 5인의 전사들

"복지기관 돌며 벽화봉사 미션 이모, 친구, 손녀로 기억해주세요"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과 엔카르나시온 등지에서는 김유진, 이민경, 이나라, 권영주, 오푸른 5명의 봉사단원이 모여 'ROHAYHU KOCIA(사랑해 코이카) 협력활동'을 진행 중이다. ROHAYHU는 파라과이에서 스페인어만큼 널리 사용되는 토착어인 과라니어로 '사랑해'라는 뜻이다. 20~30대 초반으로 구성된 단원들은 작은 규모의 사회복지 기관들을 돌며 벽화봉사와 위생교육을 진행했다. 그 현장에서 단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02


03


04


01

글 · 사진 공정인(KOICA 파라과이사무소 영프로페셔널)

Q_ROHAYHU KOICA(사랑해 코이카) 협력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게 된 계기는?

김유진 : "파라과이에는 전통 있는 '333'이라는 위생 협력활동이 있다. 보통 이러한 활동을 하는 기관들은 규모가 꽤 크다. 그런데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들은 대부분 소규모라서 단체로 협력활동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마음이 맞는 단원들끼리 소규모 기관을 방문해 조그맣게 벽화와 위생교육을 진행하자고 결심했다."

이나라 : "기관 뒷마당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봤는데, 그곳 환경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신나게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Q_단원들이 그린 벽화에 대한 호평이 많은데, 도안은 어떻게 마련했나?

김유진 : "단원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말해주면 권영주 단원이 디자인을 했다. 스케치는 이나라 단원과 권영주 단원이 함께 하고, 나머지 단원들은 색칠을 했다."

Q_수혜 기관들의 반응은 어떤가?

김유진 : "Que Lindo!(정말 예뻐요!)'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기관들이 예산이 많지 않아서 주변 환경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 다들 정말 좋아하더라. 특히 아동·청소년 기관들이 벽화를 좋아한다고 한다."

이나라 : "내가 담당했던 기관도 마찬가지다. 유지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권영주 : "다들 좋아한다. 이런 활동을 다른 기관에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반응이다."

Q_벽화 활동 전에 엔카르나시온 강변에서 그림대회를 열었다고 들었다.

이나라 : "봉사단원들이 사비를 모아 엔카르나시온 강변에서 그림대회를 진행했다. 각 기관에서 그림 수업을 진행한 후 강변에 그림을 전시해 현지인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다. 1, 2, 3등과 KOICA상 등 4개의 시상을 했는데, 상장 역시 사비를 모아 준비했다. 이곳에는 이러한 대회가 없었던 터라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까지 파라과이에 없었던 새로운 활동들을 해보고 싶다."

01 ROHAYHU KOICA 협력활동 참여 단원들 단체사진(왼쪽부터 이민경, 이나라, 김유진, 권영주, 오푸른 단원)
02 디비노 니뇨 헤수스 재단(Fundación Dívino Nino Jesús)의 식당 내 벽화 봉사 작업 중인 102기 김유진 단원(앞)과 113기 이민경 단원(뒤)
03 벽화봉사활동 시 사용하는 재료들
04 디비노 니뇨 헤수스 재단에서 이번 협력활동의 일환인 위생교육(손씻기)을 진행하는 102기 김유진 단원
05 113기 이나라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디비노 니뇨 헤수스 재단에서의 벽화 봉사활동 모습(왼쪽부터 권영주, 오푸른, 이나라 단원)


05

Q_이런 활동을 기획하고자 하는 다른 단원들에게 해줄 조언이 있다면?

오푸른 :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기관 코워커들과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야기를 해보고, 기관의 협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기관들이 피드백을 빨리 주지 않아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한다."

Q_활동이 끝나고 파라과이를 떠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

이민경 : "손녀 같은 사람.(이민경 단원의 기관 수혜자는 대부분 노년층이다.)"

김유진 : "이모 같은 사람. 기관 사람들은 다들 나를 'Tia(이모)'라고 부른다."

이나라 : "다시 또 만나고픈 사람."

권영주 : "그냥 외국인이 아닌, 친구처럼 기억되고 싶다."

오푸른 : "친구처럼. 같이 노는 아이들처럼 편하게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KOICA와 단원들을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언론의 주목과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지 않아도, ROHAYHU KOICA 단원들의 협력활동은 계속된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회복지기관과 수혜자들에게 조그마한 환경의 변화를 선물해주고 싶은 것뿐이다. 이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아이들에게는 큰 선물이 된다. 아이들은 단원들을 보며 'ROHAYHU KOICA!(사랑해 코이카!)'를 외친다. 그리고 그렇게 KOICA를 기억한다. 그렇기에 ROHAYHU KOICA 단원들은 몸이 고돼도, 생활비가 떨어져도 포기하거나 아쉬워하지 않는다. 따뜻한 파라과이 햇살에 벽화가 금세 마르고, 단원들은 또 다음 활동을 기획한다.


01

시에라리온에 '깨끗한 물' 선물하는 KOICA
보건시스템 높이고 양국 우호관계 기여

2013년 12월, 서아프리카 기니의 작은 마을에서 두 살배기 어린아이가 돌연 죽음을 맞이하고 일주일 뒤 가족들도 같은 고통을 호소하며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프리카 대륙을 강타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시작이었다. 바이러스는 곧 주변국인 시에라리온까지 퍼지며 시에라리온에 극심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이에 시에라리온 정부는 추후 유사 질병 발생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Post-Ebola 복구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KOICA(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이은주(KOICA 국민소통실 인턴기자)
사진 KOICA 서아프리카실

에볼라로 사망자 4808명 발생···
KOICA에 식수시설 지원 요청

2015년, 시에라리온 정부는 공식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의 종식을 선언했지만 발병은 1만 672건, 사망자는 4808명에 달했고 GDP 성장률은 -20.5%를 기록하는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시에라리온 국민들은 에볼라 창궐 이전에도 말라리아, 결핵, 설사병 등과 같은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러한 질병 확산은 '불안정한 식수 분포'와 '비위생적인 취수 방식'에서 기인한 결과였다.

시에라리온에서는 국민의 단 1.1%만이 물을 끓여 마시고 있으며 대도시·서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식수 접근 자체가 어렵다. 식수·위생 인프라 기반이 구축되면 피부 및 안(眼)질환 예방, 물을 매개로 하는 곤충 감소, 개인 위생관리 증진 등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인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지만 시설 공급에 비교적 높은 투자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로 국가적 피해를 입자 시에라리온 정부는 'Post-Ebola 복구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방안의 하나로 한국 정부와 KOICA에 식수시설 지원사업을 요청했다. KOICA는 시에라리온 보건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향상'을 목표로 삼고 '시에라리온 Post-Ebola 복구 식수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복원력(Resilience) : 어떤 위기(에볼라와 같은 전염병 창궐 등)가 발생했을 때, 한 국가의 보건체계가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원래의 정상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역량. 깨끗한 물은 향후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깨끗한 식수위생을 통해 질병을 더욱 쉽게 극복할 수 있어 보건시스템의 복원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1차로 440개 마을에 관정 새로 만들고 낙후된 펌프 수리

이 사업에서 KOICA는 사업 수행기관 선정, 자금 지원 및 사업 모니터링을 담당했다. KOICA는 식수지원과 보건위생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단법인 팀앤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시에라리온 Post-Ebola 복구 식수시설 1차 사업(2015~2016)'을 진행했다. 1차 사업을 통해 시에라리온 북부, 포트로코, 캄비아 지역의 440개 마을에서 신규 관정*(20공)이 개발되고 낙후된 펌프(440개)와 인력 관정(40개)이 수리되었다. 이를 통해 시에라리온 내 안전한 수자원 접근성이 9%가량 향상되었고(47%→56%), 펌프 1개당 사용자수는 약 15%(408명→353명)정도 감소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안전하지 못한 개울에서 물을 긷던 지역주민들은 야생동물(뱀, 야생원숭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관정(管井) : 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만든, 둘레가 대롱 모양으로 된 우물. 충적층 또는 암반층까지 깊이 굴착해 지하수를 모으고, 이를 양수하여 관개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소규모 수리시설이다.


02

01
수리된 펌프에서 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주민들
02
관정 개발 전, 지질 조사를 하는 모습

시에라리온 정부는 1차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만족해 지역을 확장하여 2차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현재 시에라리온의 코노 및 본스 지역을 중심으로 '시에라리온 Post-Ebola 복구 식수시설 2차 사업(2017~2018)'이 진행되고 있다. KOICA와 사단법인 팀앤팀은 식수시설 복구지원(신규 관정 개발 20공, 파손된 펌프 수리 500개, 인력 관정 보수 50개)과 주민 역량 강화(520개 마을 식수시설 관리교육, 펌프 유지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식수관리 기자재 보급, 지역주민 대상 식수 및 위생관리 교육 추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나가고 있다.

2차 사업 진행 중 · · · 주민 역량강화 사업도 실시

2018년 6월 본스 지역의 관정 개발(12공) 및 펌프 수리(200개)가 완료됐으며, 코노 지역 역시 관정 개발(3공)과 펌프 수리(67개)를 완료, 추가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식수시설 복구지원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말 사업이 종료되면 지역주민, 취약계층(아동 · 여성) 등 약 20만 8000명이 직접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KOICA와 팀앤팀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현지 주민의 참여도 독려했다. 주민들은 식수시설 개발에 직접 참여하며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1차 사업은 단순히 에볼라로 고통받는 시에라리온 주민들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강했다. 그러나 2차 사업은 에볼라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시에라리온 보건시스템의 복원력 향상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리 정부가 에볼라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넘어 시에라리온 정부의 보건시스템 향상과 양국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깨끗한 물은 단순히 '음용할 수 있는 물'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깨끗한 물은 빈곤의 탈출, 여성의 교육, 나아가 더 건강한 삶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본 사업은 단순히 보건위생 향상 측면의 성과를 넘어 '공동체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01


02

01
개발된 관정에서 물이 나오는 모습
02
개발된 관정에서 물을 긷고자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



학교 방문 단체 사진

인도네시아 초등학생 건강증진사업
2004년 쓰나미로 무너진 학교보건환경, KOICA의 지원으로 다시 일어서다

2004년 12월, 지난 100년의 지구촌 역사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규모의 인도양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을 강타했다. 쓰나미 발생 당시 아체주 전체 사망자는 17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재해는 심각했다. 아이들의 터전인 학교도 쓰나미의 거대한 파도를 피하진 못했다.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버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체 지역은 재기를 위한 누군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했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와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는 아체주의 반다아체와 아체베사르 지역의 학교보건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힘을 모았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차에 걸쳐 보건 인프라 구축, 보건교육 실시와 더불어 지역 내 보건시스템 자력갱생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글 여지은(KOICA 국민소통실 인턴기자)
사진 한국건강관리협회


01


02


03

자연재해 당시 아체州, 보건실·보건인력 태부족 상태

사업을 시작할 당시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은 2004년 쓰나미 피해의 여파로 기초보건 서비스가 취약했다. 아체베사르 지역 총 면적 2969㎢ 내 병원은 단 한 곳뿐이며, 의사 수도 39명에 불과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0.1명으로, OECD 평균치인 3.2명의 3.1% 수준에 그쳤다.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초등학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아체 지역은 학교보건 예산이 부족해 지역 내 306개 학교(반다아체 97개, 아체베사르 209개) 중 전문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가 단 두 곳(0.6%)에 불과했다. 나머지 학교에서는 체육교사를 각 2명씩 배치해 보건교육을 실시했지만 교사들의 보건지식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학교 보건실이 마련돼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의료 기자재나 의약품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로 인해 아체 지역 초등학생들은 건강정보를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기가 어려워 질병 감염, 예방책 부족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학교 보건시스템 강화 사업 착수… 재건 공로상 받기도

아체 지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가 우선순위 해결과제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KOICA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건협과 함께 '인도네시아 초등학생 건강증진 지원사업'에 뛰어들었다.

사업은 아체 지역 초등학생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목표하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 2차에 걸쳐 진행됐다. 학교 보건실 구축, 건강·보건 교육 실시, 건강검진, 학교보건 프로그램의 학술·기술적 전수 등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었다.

KOICA는 반다아체 퍼마타하티재단(PHMF) 및 각 지역정부 부처(보건부 등)와 협력해 반다아체 및 아체베사르 총 60개 초등학교에 보건실 장비, 기자재와 의약품을 지원했다. 기초 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건강생활 실태조사와 보건교육 활동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학교보건에 대한 인식을 개선했다. 그 결과 아체 지역 209개 초등학교 학생 4만 292명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지역 내 보건의식 수준을 제고해 질병퇴치와 환경보장에 기여할 수 있었다. KOICA와 건협은 현지 학교 보건 발전 공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반다아체와 아체베사르 지역정부로부터 '2017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지역 재건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3년간 3차 사업 돌입… 체계적인 역량 강화 교육에 집중

1, 2차 사업의 성공으로 반다아체 및 아체베사르 지역정부는 3차 사업을 KOICA에 요청해왔다. 이에 현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된 3차 사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3차 사업은 지난 사업을 통해 구축해놓은 학교 보건시스템을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 보건교사, 보건소 검사 실무자 등의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KOICA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교사, 보건소 실무자, 꼬마의사*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학생과 지역주민 대상 보건의식 제고를 위한 보건교육과 설문조사, 원활한 사업수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활동을 진행 중이다.

*꼬마의사(Dokter Kecil) : 학생들 중에 선정, 간단한 응급처치법 및 예방, 위생행태 등의 활동을 선도해 학교 보건 개선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

1차 사업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의 수혜자는 6만 명 이상에 달한다. 직접 수혜자는 건강증진활동 참여 학생 4300명, 역량 강화 교육 수강 교사 120명, 정부기관 및 사업협력기관 관계자 60명, 지역보건소 실무자 162명, 꼬마의사 900명 등 총 5542명으로 집계됐다. 간접 수혜자는 반다아체 97개 초등학교 학생 1만 7553명, 아체베사르 209개 초등학교 학생 4만 292명으로 총 5만 7845명이다.

3차 사업(2018~2020년)에서는 더 많은 수혜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KOICA는 앞으로 이 사업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주민들이 열악한 보건환경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누리는 날이 올 수 있길 바란다.

01
사업 간담회
02
사업 이후 개선된 학교 보건실
03
학생 검사
04
학생 건강 기록부



04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18.AUTUMN

캄보디아 건강형평성기금 제공 및 보건서비스 질 제고 사업

공공 의료서비스 UP!
빈곤층 접근성 UP!

캄보디아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230달러인 저소득국이다.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 캄보디아 정부가 자체적으로 국민들의 복지나 사회안전망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재정도 부족하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전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제도가 없어 의료비용이 높다. 그래서 병원 문턱은 취약층에게 한없이 높기만 하다.


02



03



04

01 SDGs 기금으로 개선된 보건소 시설
02 지방 후송 병원 입원실
03 HSSP2 지원 로고
04 H-EQIP 지원 로고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 세계 평균의 3배로 의료 문턱 높아

캄보디아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Out-of-pocket · 이하 OOP)이 60%(2012년도 WHO 발표)로 전 세계 평균(약 17.9%)의 3배에 달한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렵고, 특히나 전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빈곤층과 취약계층에는 병원 문턱이 더욱 높아 일상의 안녕을 위협받고 있다. 높은 의료비만이 문제가 아니다. 캄보디아는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 질도 매우 낮아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전국에 2개, 기타 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도 손에 꼽을 정도다. 이 때문에 캄보디아 국민들은 국공립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신뢰하지 못한다. 사립병원의 진료비가 국공립병원보다 최소 2배에서 10배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립병원을 찾는 이유다.

KOICA, H-EQIP 사업에 참여…
700만 달러 지원

캄보디아 정부는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공여국들과 함께 빈곤층에 의료비를 대납해주고 공공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빈곤층 의료 접근성 및 서비스 향상 사업(이하 H-EQIP · Health Equity and Service Improvement Project)'이란 명칭으로, 2016년 7월 시작됐으며 2021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01

사업은 세계은행, 호주 DFAT, 독일개발은행(KfW)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총 1억 7420만 달러로 이 중 8000만 달러는 공여국들이, 나머지 9420만 달러는 캄보디아 정부의 재정을 활용하고 있다. 이 중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는 7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KOICA는 H-EQIP 사업의 전신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건 분야 지원 사업(HSSP2 · Health Sector support Program)'을 진행하기도 했다.

1) 사업활동 1 – 건강형평성기금 지급

H-EQIP 사업의 핵심요소는 건강형평성기금(Health Equity Fund) 지원이다. 이 기금은 최저빈곤층과 취약계층의 의료비와 관련 경비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다. 빈곤층에 대한 건강보험제도라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부재로 인한 캄보디아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NGO들은 2000년부터 건강형평성기금을 조성해 최저빈곤층이 국립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2005년부터 캄보디아 정부에서 기금관리를 하기 시작했고 교통비, 장례비, 가족 식비 등 비의료성 경비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이 기금으로 인해 현재는 1200개가 넘는 전국의 모든 국공립병원과 보건소에서 극빈자증명카드(ID poor card)가 있는 환자에게 진료비와 기타경비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병원과 보건소는 월별 면제 금액을 정부에 보고하여 보전을 받고 있다.

2) 사업활동 2 – 의료인프라지원금

건강형평성기금(HEF)과 함께 H-EQIP 사업의 주축을 이루는 것이 의료인프라구축지원금(Service Delivery Grant)이다. 캄보디아 전국의 병원, 보건소 및 보건 당국은 분기별로 일정 금액의 의료인프라구축지원금을 지급받아 병원 인력의 성과급, 병원 시설 개선, 인력 역량 강화 등에 사용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분기별로 전국의 모든 병원, 보건소, 지역 보건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공공보건 의료시설의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보편적인 의료보장 실현에 기여하는 H-EQIP 사업

SDGs(지속가능한개발목표) 보건 분야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보편적 의료보장(Unversal Health Coverage)이다. H-EQIP 사업은 캄보디아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보장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2018년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건강형평성기금 지원을 비공공 부문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캄보디아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사업의 재원 또한 60%를 캄보디아 정부에서 분담하고 있고, 사업수행도 캄보디아 보건부와 지방보건국에서 실행하고 있다. 공여국이 기술자문과 모니터링만 수행하고 있을 정도로 사업에 대한 수원국의 주인의식이 높다.

아울러 캄보디아 정부는 2021년 H-EQIP 사업 종료 이후 자체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 2017년 말부터 건강형평성기금과 SDGs 평가를 실시할 PCA(Payment Certification Agency)라는 기관을 설립했다. PCA는 올해 말부터 건강형평성기금을 직접 운영하고 2019년부터는 SDGs 사후 평가 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HSSP2, H-EQIP 사업으로 인해 캄보디아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제도적 ·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HSSP2와 H-EQIP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또한 KOICA는 사업을 통해 수원국의 재정과 조달시스템을 직접 활용하는 프로그램 기반 접근법(PBA)*으로 원조자금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ODA 수행방식도 경험함으로써 한국 ODA 사업의 질적 제고의 발판을 마련했다.

*PBA(Program Based Approach) : 프로그램 기반 접근법. 원조받는 나라가 주도하는 개발 사업을 지원할 때 대상국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

글 · 사진 김지윤(KOICA 캄보디아사무소 부소장)

KOICA와 한국발명진흥회의 필리핀 민관협력 프로젝트

'꽃 중의 꽃'이 마을 사람들의 희망 되다

필리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방정부 중 하나인 딸락주 내 아나오군. 이곳에서는 고급 에센셜 오일의 원료가 되는 일랑일랑 꽃이 핀다.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원료임에도 이를 활용한 소득창출은 미미했던 이곳이 적정기술 도입을 통해 원산지 지위 회복의 꿈을 꾸게 되었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와 한국발명진흥회의 협력이 돋보였던 이번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01

글 김보름(KOICA 국민소통실 인턴기자)
사진 KOICA 필리핀사무소

고급 에센셜 오일의 원료 되는 일랑일랑 꽃 원산지 아나오 마을

필리핀 따갈로그어로 '일랑일랑'은 '꽃 중의 꽃'을 의미한다. 원산지는 필리핀으로, 꽃에서 추출된 에센셜 오일은 유명 향수의 주요 성분 중 하나로 유명하다. 아나오 사람들은 매년 일랑일랑 축제를 개최할 정도로 이 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지 특산품인 일랑일랑 꽃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득창출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황 조사 결과, 보유하고 있는 오일추출기가 노후화되어 생산성이 매우 낮았고, 추출된 오일의 품질도 보장하기 어려웠다.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에센셜 오일 마케팅 역량 부족도 걸림돌이었다. 그렇다 보니 추출된 오일이나 2차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KOICA, 현지 상황에 적합한 기술 전수시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 고안되는 기술인 '적정기술'이 적합했다. 첨단 기술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구현할 수 있어 최빈국과 개도국에 알맞은 기술이기도 했다. 먼저 쉽고 안전하게 오일을 추출하고, 현지 기술력으로 수리가 가능한 오일추출기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을 찾아내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특허 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발명진흥회와 다양한 국제협력 경험을 보유한 KOICA가 힘을 합치게 되었다.
초기에 오일추출기를 제작하기 위해 국내에서 설계한 도면을 가지고 필리핀의 제조업체들을 물색했지만 적절한 업체를 찾기 어려웠다. 노력 끝에 필리핀 농림부 산하 농업연구소를 통해 오일추출기를 만들어줄 업체를 찾았다. 그 후에도 완제품을 만들기까지 용접 상태가 좋지 않아 물이 새거나, 고열의 증기 때문에 틈새의 고무가 녹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해 수정을 거듭했다. 그때마다 제조업체까지 왕복 10시간 거리를 오가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01 일랑일랑 꽃에서 추출한 오일로 만든 제품들
02 일랑일랑센터 외부 전경
03 재배한 일랑일랑 꽃
04 적정기술로 제작되어 보급한 오일추출기



02



03



04

"일랑일랑 오일 추출 시설 덕분에 꽃잎 채집자, 오일 추출 및 제품 생산자 등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추가적인 임금 소득도 가능해졌다. 생산능력도 발전해서 여러 가지 제품군을 형성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협동조합을 통해 선순환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나가길 기대한다."
–Jocelyn Punzalan 일랑일랑 협동조합장

그렇지만 현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결국 많은 실험을 통해 목표로 삼았던 오일추출기 10대를 보급할 수 있었다.

관리센터도 건립…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돋움

오일추출기 보급 이후 설비를 갖추고 품질 역량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랑일랑센터'도 건립되었다. 일랑일랑센터를 중심으로 에센셜 오일을 활용한 2차 상품을 제작하고, 품질관리를 통해 사업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과 브랜드 교육이 실시됐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하여 지역사회의 소득증대와 연계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더불어 아나오군은 사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한국 측이 요청했던 협동조합 설립, 일랑일랑 농장 설립, 일랑일랑 수확 체계 마련, 제공한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등록 등도 스스로 해냈다.

더불어 아나오 지방자치단체 시의원실의 사업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4~8월 기준으로 2650여명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혜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중이다. 이 중 2356명은 일반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주변에 심어진 일랑일랑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법령으로 보장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수익창출을 가능하게 했다.

현지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백 KOICA 필리핀사무소 부소장은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시너지 효과 도모를 위해 KOICA IBS사업*으로 추진을 모색 중이다. 또한 안정적 원료 수급이 사업의 바탕이므로, 아나오군과 협력해 정부가 운영하는 일랑일랑 농장과 재배 농가를 확대하고 있다. 향후 보다 큰 지역인 딸락주와 협업하여 일랑일랑 원료 수급을 원활히 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적정량의 원료 수급과 판매망이 갖춰지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국제적 사회적 기업 인증인 'B-Corp' 인증도 시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IBS(Inclusive Business Solution, 포용적 비즈니스프로그램) : KOICA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해 개도국 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소득 증가에 도움을 주는 사업



일랑일랑센터 개소식

INTERVIEW

필리핀 고교에서 작물재배 가르치는 차병엽 봉사단원

"한국의 첨단 농업 신기술 씨앗 뿌려 필리핀 농업 이끌 꿈나무 키웁니다"

필리핀 곳곳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선진 농업기술을 알리고 현지인들의 소득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있다. 경기 파주에서 농촌지도사로 38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차병엽 단원도 그 중 한명이다. 그는 필리핀 킬리카오고등학교(Kilicao National High School)에서 작물재배 실습교육을 담당, 필리핀 농업의 꿈나무인 학생들을 가르치며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글 여지은(KOICA 국민소통실 인턴기자) · 사진 차병엽(월드프렌즈 KOICA 일반봉사단 단원)



01 차병엽 월드프렌즈 KOICA 일반봉사단 단원
02 킬리카오 학생들과의 실습교육 현장



Q_자기소개와 KOICA 봉사단원에 지원한 계기는?

"1978년부터 파주시청 공무원으로 38년 동안 농업인들과 함께했고, 그곳에서 정년퇴직까지 했다. 오랜 기간 파주시 농촌지도사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농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농업인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KOICA 봉사단원이라면 이런 경험을 살려 제 역량을 발휘하면서도 제2의 인생을 의욕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KOICA 해외봉사단원으로서의 꿈은 새로운 도전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으며, 파주 시민에서 세계 시민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Q_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재배 실습에 필요한 영농도구와 자재 등이 전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우선 KOICA 마닐라사무소에 학교 실정과 재배 실습 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도 KOICA 사무소에서 활동 지원 물품비 예산을 지원받아 삽, 호미, 곡괭이, 갈퀴, 분무기, 모종삽, 전정가위, 전정톱, 채소종자, 꽃종자 등 45종의 농기구와 복합비료, 요소비료, 살충제, 스프레이 등 실습재료를 구입해서 수업을 준비했다. KOICA의 지원으로 모든 학생들이 원활히 실습에 참여할 수 있었다."

Q_학생들과 함께 친환경 살충제를 만들어 병해충 방제에도 힘썼는데,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는가?

"우리나라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발생하는 병충해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과학적, 체계적인 방제기술이 잘 갖춰져 있다. 그에 반해 이곳 필리핀은 겨울이 없고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 기후 특성상 다양한 병해충이 많이 생긴다. 그러나 한국과 다르게 일부 농가에서는 가난으로 방제농약조차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친환경 살충제는 사전에 치밀하게 방제해야 효과가 크기에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실습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학습효과가 있다."

Q_활동을 시작한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한국의 농업 신기술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해 밝은 꿈을 심어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킬리카오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한국의 농업 신기술*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었다. 영농시설의 현대화, 자동화, 품질의 고급화 등이 이루어진 선진 농업국 수준의 한국 농업을 소개했더니, 킬리카오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전교생이 박수를 쳤다. 농업도 과학영농으로 기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새롭게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필리핀 농업 발전의 미래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으리라 믿는다."

*트랙터 부착용 비닐피복기 작업, 승용이앙기 기계작동, 콤바인 벼수확 그리고 벼건조 및 도정 자동화 시설(RPC) 등



카메룬 전자조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여

전자조달시스템은 조달 업무의 전 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처리하는 체계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모든 문서 형식이 표준화되고 관련 업계에서 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조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업무 형식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 카메룬사무소는 2013~2015년 '제1차 전자조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카메룬 공공계약부와 공동 추진했으며, 올해 '제2차 전자조달시스템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카메룬 전자조달 업무 효율 낮아…
공공계약부 신설

카메룬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2011년 대통령직속기구로 공공계약부를 신설했다. 공공계약부는 조달과 계약 과정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로 조달규제기관과 협력해 입찰, 계약금 요청에 대한 승인, 계약집행 감독, 정책 개혁과 역량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 사업 시작 전 현황을 분석할 당시 카메룬에서는 중앙부처 · 지역 조달위원회에 의해 약 3000여 건, 2554억 세파프랑(4억 5000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조달 계약이 이뤄지고 있었다.* 공공계약부가 설립되고,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등 인프라는 갖춰져 있었지만 시스템의 보급률이 낮고 업무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관련 법제도 역시 미비했다.

*출처 : 2012년 제1차 전자조달 마스터플랜 현황분석 결과

KOICA 도움으로 한국의 선진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전자조달시스템 보유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은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고, 현재는 공공조달 분야 개혁에 관심 있는 나라에 노하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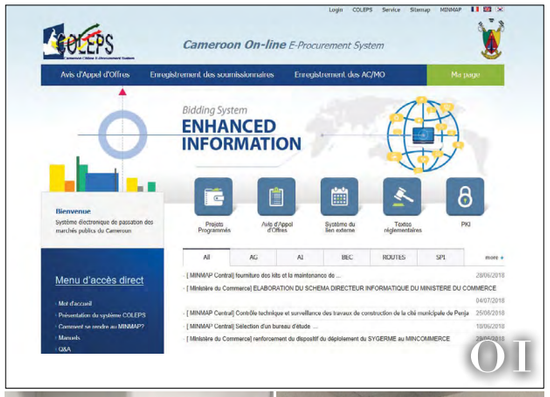
이에 카메룬은 2013년 한국과의 양자협력을 바탕으로 '카메룬 온라인 전자조달시스템(COLEPS · Cameroon Online e-Procurement System)'을 구축했다.*

KOICA는 카메룬 공공계약부의 서버룸을 개조해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해당 시스템은 현재 사업 문서의 전산화, 기업 간의 입찰서 제출 공개 및 분석, 최적의 입찰자 선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카메룬 온라인 전자조달시스템(COLEPS) 웹사이트 : www.publiccontracts.cm/index.do

카메룬 공공계약부와 KOICA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축된 전자조달시스템은 공공계약 투명성

01
카메룬 전자조달시스템 사이트 메인 화면
02, 03
공공계약부에 위치하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룸
04
지난해 6월 8일, 제1차 전자조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감사장 수여 모습. 아바 사두(Mr. Abba Sadou) 공공행정부 장관(왼쪽)과 송상우 소프트아이텍 프로젝트 매니저(오른쪽)







글 · 사진 나규문(KOICA 카메룬사무소 영프로페셔널)

"KOICA는 2013년 '카메룬 온라인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 공공조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카메룬 내에서 지속적으로 시스템이 관리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01



02

강화와 경영 효율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기업정보 등록 및 입찰정보 보호가 가능해져 투명성이 강화되었고, 전자조달 서비스의 단계별 업무를 인증, 암호화함으로써 정보 공신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2020년까지 전자쇼핑몰 · 전자페이 등 2차 역량강화 사업 시행

KOICA는 카메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KOICA의 도움으로 공공조달시스템 운영총괄을 맡고 있는 공무원 약 10명은 약 1주일간(2014년 11월 7~17일) 한국의 전자조달 유관기관을 방문해 시스템 운영과 조달 관리 역량을 쌓았다. 현지 공공계약부에서도 전자조달 사업기술자 23명을 대상으로 약 1주일간(2015년 9월 27일~10월 5일) 관련 법 제도 및 부처의 니즈 분석, 시스템 설계 및 교육 훈련 등의 현장 교육이 이뤄졌다. KOICA는 카메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제2차 카메룬 전자조달시스템 및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KOICA는 후속 사업을 통해 전자조달시스템 내에 전자목록정보시스템, 전자쇼핑몰, 전자파일, 전자페이(Pay), 전자계약 등의 기능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후속 사업이 카메룬 공공행정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01
제2차 전자조달시스템 및 역량강화 사업 심층기획조사 회의를 하고 있다. 연제호 카메룬사무소장(가운데), 카메룬 공공행정부 관계자(왼쪽), 카메룬사무소 직원 및 출장단(오른쪽)

02
제2차 전자조달시스템 및 역량강화 사업 심층기획조사 회의

INTERVIEW

카메룬 전자조달시스템 담당 아이 작(AYE'E Jacques) 코디네이터

"우리나라 발전에 꼭 필요한 시스템 KOICA와의 협력으로 성공 정착 기대"



Q_간단한 자기소개를 해달라.

"2012년부터 공공계약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보시스템부 책임자 아이 작이다. KOICA 카메룬 전자조달시스템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도 맡고 있다."

Q_KOICA와 카메룬 공공계약부는 2015년에 제1차 전자조달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종료했다. 사업은 정부 및 부속기관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우리는 KOICA와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함께 일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카메룬에 전자조달시스템이 구축되었고 현재 원활하게 운영 중이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카메룬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조달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Q_카메룬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한 점은 무엇인가?

"카메룬 공공계약부는 전자조달 분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방법을 교육하는 워크숍을 가졌다. 올해는 카메룬의 8개 지역에서 워크숍을 열었으며, 앞으로 2개의 영어권 지역*에서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카메룬은 식민시대의 영향으로 영어권과 프랑스어권 지역으로 나뉘어 있음.

Q_KOICA와 협력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

"KOICA와의 협력은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되어 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어려웠던 점을 굳이 찾자면 한국인 프로젝트 운영컨설턴트와 회의를 진행할 때,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다보니 종종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역사가 필요했다. 그러다 보니 주요 이슈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카메룬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이라는 공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 있다."

Q_올해 제2차 전자조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차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달라.

"1차 사업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해 보다 정교하게 2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차 사업의 목표가 카메룬에 전자조달시스템을 보급하는 것이었다면, 2차는 전자파일, 전자계약, 전자페이 등 새로운 전자조달 기능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1차 사업 때의 전자입찰 및 전자조달 포털사이트 제작을 넘어 더 세부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다."

Q_2차 사업으로 카메룬의 전자조달 환경이 더 업그레이드될 것 같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

"전자조달시스템은 카메룬에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시스템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법률 문서들도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2년간 KOICA와 협력해 사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18.AUTUMN

캄보디아 뚜얼슬랭 대학살 박물관 보존 및 디지털화 지원사업은
KOICA 웹진 〈지구촌가족〉 8월호 'KOICA VIEW'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webzine.koica.go.kr/201808/content1_3.php?code=201808_010103

KOICA의 캄보디아 뚜얼슬랭 박물관 자료 디지털화 사업

'킬링필드의 상징'에서 '평화의 구심점'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며 평화롭게 뛰놀던 캄보디아 수도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는 어느 날 비명이 가득한 감옥으로 바뀌었다. 이곳에 수감됐던 무고한 2만여 명의 죄수 중 생존자는 단 7명. 감옥에는 수많은 고문기구와 죄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자료가 남겨져 있었다.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자료들이 제대로 보존돼야 하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훼손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가 나섰다.


01



02


03

킬링필드의 산증인 '뚜얼슬랭 박물관'

킬링필드는 1975~1979년 사이 캄보디아의 급진적 공산주의 크메르루주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학살을 말한다. 통계에 의하면 크메르루주가 집권한 3년 7개월 동안 크메르루주는 800만 인구의 4분의 1인 200만 명이 죽었다*. 캄보디아 뚜얼슬랭 대학살 박물관은 앞서 언급한 킬링필드의 잔혹한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이 박물관은 본래 고등학교였으나 크메르루주 정권은 이 장소를 이전 정권의 관리나 지식인을 심문하고 고문하는 끔찍한 감옥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감옥에 수용되었던 2만여 명의 죄수 중 불과 7명만이 살아남았을 정도로 무차별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 오늘날 이 감옥은 뚜얼슬랭 박물관으로 개조되었고 그 어떤 감옥보다 희생자들의 진술서, 개인이력서, 희생자들의 사진, 정권의 선전 잡지 등 크메르루주의 자료를 많이 보관하고 있다.

*출처 :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뚜얼슬랭 박물관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었으나 현지의 열악한 환경으로 소장자료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료 보존 기술 부족으로 박물관 직원들이 자료 열람을 할 때 땀과 오염물이 묻어 자료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었고, 문서의 장기간 보관을 위해서는 항온항습 장치를 갖춰야 하지만 자료보관실에 에어컨만 비치되어 있기도 했다. 자료에 생기는 벌레들을 퇴치하기 위해 항산화 및 벌레 퇴치를 위한 특수 상자나 폴더 등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자료의 공유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많았다. 소장자료가 문서로만 보관되어 있어 희생자 가족이나 연구자들이 열람을 요청하고 직접 방문해야만 볼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자료 공유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희미해지는 뼈아픈 교훈, 역사에 다시 아로새기다

이전에도 캄보디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넬대학 등의 지원을 받아 자료 보관 기술을 전수받고 자료를 부분적으로 스캔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여전히 산적해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와 유네스코는 한국 정부에 자료 보관 역량 강화 및 디지털화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KOICA는 유네스코와 협력해 2018년 1월 29일 뚜얼슬랭 박물관의 40만여 점 자료를 영구보존하기 위한 역사 자료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를 착수했다. KOICA는 115만 달러의 사업비를 제공하고, 유네스코와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사회적 기업 DDD(Digital Divide Data)*도 사업수행자로 참여해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현지 보존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실시 중이다.

*DDD(Digital Divide Data) : 미국 뉴욕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 데이터, 연구 서비스를 전 세계 고객들에게 유통하는 사회적 기업

이번 사업은 뚜얼슬랭 박물관 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화 및 색인 작성, 메타 데이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40만 쪽 이상의 원본자료를 디지털화하고, 크메르어 · 영어 · 프랑스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자료를 스캔해서 관련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것이 아닌 자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 자료를 함께 게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DDD는 캄보디아 문화부 및 크메르루주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아 좀 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전에 외국 대학들이 박물관 자료의 스캔 작업을 했으나 디지털화된 자료의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에 교훈을 얻어 본 사업에서는 자료 관리 및 시스템 관리 기술 전수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KOICA와 유네스코는 기록물 원본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관내에 항온항습 기능을 갖춘 문서보관소를 설치하고 직원들의 자료 보관 역량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2019년 연초와 연말에 2번의 국제컨퍼런스도 계획하고 있다. 국제컨퍼런스에서는 미국, 폴란드, 르완다, 아르헨티나 출신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전쟁과 대학살의 경험을 토대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혜를 모을 것이다. 이처럼 KOICA는 자료의 디지털화에서부터 공유 체계를 확립하는 것까지 총체적인 지원을 통해 뚜얼슬랭 박물관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역사적 공간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01 정윤길 KOICA 캄보디아사무소장이 착수식에 참가하여 연설을 하고 있다
02 (왼쪽부터)Anne Lemaistre 유네스코 캄보디아 대표, Chun Phoeun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장관, 정윤길 KOICA 캄보디아사무소장
03 원래 교실이었던 공간이 수감자들을 고문하는 감옥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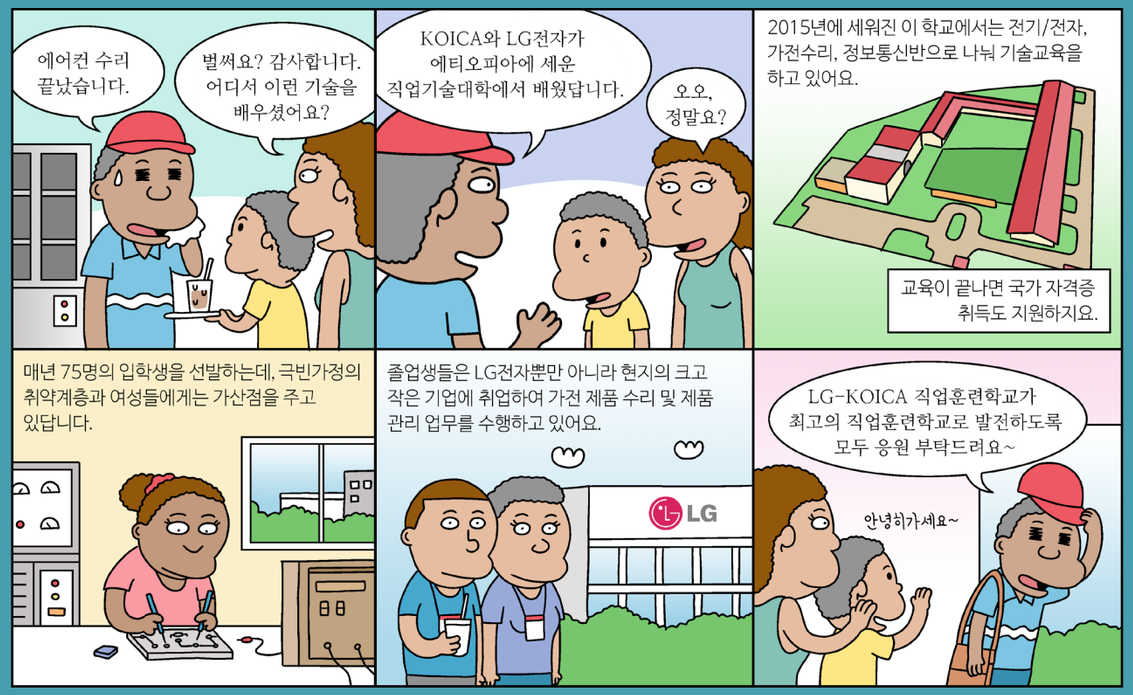
KOICA, 캄보디아 상처를 치유하고 포스트 킬링필드에 앞장

크메르루주 학살은 유대인 학살, 르완다 학살과 함께 '세계 제3대 학살'로 불릴 정도로 세계 역사상 어두운 역사이며 캄보디아 국민에게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다. 본 사업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뚜얼슬랭 박물관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크메르루주 정권에서 행해진 사회 전방위적 파괴와 잔인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화된 자료는 단지 역사적 현장의 보존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 아픈 역사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크게 기여할 것이며 평화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아울러 본 사업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다. 우선 팔만대장경 보관, 국가기록원, 국립도서관의 디지털화된 방대한 자료 등 우리의 선진적인 자료 보존 기술이 본 사업을 통해 홍보될 것이다. 뚜얼슬랭 박물관은 향후 아우슈비츠 박물관, 히로시마 평화기념박물관 등과 같이 세계적인 평화를 위한 역사 학습현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뜻깊은 사업을 한국 정부가 주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글 박찬응(KOICA 국민소통실 인턴기자)
사진 KOICA 캄보디아사무소

||| 에티오피아에서 전자제품 서비스 명장을 키우는 LG전자

"차세대 맥가이버 되어보지 않겠나?"



에티오피아 직업기술대 건립·운영 LG전자 담당자들

"졸업생들 100% 취업 또는 창업 최고의 직업훈련학교로 발돋움 기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두 번째 인구대국이지만 2017년 기준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은 861달러로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에티오피아. 농업에 의존한 성장에서 탈피하고, 국가 주도로 민간 부문 강화와 제조업 육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해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LG전자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와 '에티오피아 직업기술대학 건립·운영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현진 LG전자 책임을 만나 사업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01



02



03

01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 졸업식
02
희망직업훈련학교 전경
03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를 방문한
이미경 KOICA 이사장

Q_현재 진행 중인 '에티오피아 직업기술대학 운영사업' 이전에 1, 2차 사업도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다. 이전 사업의 성과는 어땠는지, 사업을 계속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학교 사업을 단기로 할 생각은 아니었다.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배출한 후, 학교 자체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 첫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시공 허가를 받고 부지를 선정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개교는 에티오피아 신학기가 시작하는 2014년 11월에 했고, 2015년부터 운영을 직접적으로 하게 됐다. 교육과정은 3년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 졸업생을 2번 배출했다. 이번 3차 사업에서는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 찾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Q_직업기술대학의 커리큘럼과 학생 수 등 운영방식은 어떠한가?

"전기·전자, 가전수리, 정보통신반을 각 25명씩 1년에 75명 선발한다. 참전용사 후손, 극빈가정 등 취약계층과 여성들에게는 가산점을 제공한다. 분야가 전자수리이다 보니 여학생 수가 15% 정도로 적다. 졸업생은 작년의 경우 64명, 올해는 55명이었다. 에티오피아에는 직업훈련수업이 4단계(레벨)로 구성된다. 우리 학교는 모든 단계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입학시험을 통해 학생들 각자 교육받을 수 있는 수준이 정해지고, 각 단계가 끝나면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다. 취득한 교육 단계의 숫자가 높을수록 졸업 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합격률은 평균 98%에 다다르는데, 학교가 개교와 함께 국가공인 기술자격증 시험 장소가 되었다는 점과 집중학습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 입학할 때는 영어면접도 보는데, 이유는 교재가 영어로 제작되어 있고, 해외취업 시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과정은 무상교육이며 취약계층에게는 무료급식도 제공한다."

Q_직업기술대학을 졸업해 실제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2017년에 1회 졸업생이 나왔는데 100% 취업 또는 창업으로 이어졌다. 졸업식에 갔더니 창업을 한 학생이 명함을 건네주었다. 복사기 등 LG전자 제품 출장수리였다. LG전자가 A/S를 제공하지만, 아직 밀수로 들여오는 전자제품도 많다. 이러한 제품 수리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졸업자 중 4명은 우리 센터에 취직했다.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에서 실습해보고, 채용까지 연계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 기업에서도 수리 및 제품 관리 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진출한다."

Q_현지에 방문했을 때 그곳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하다.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구열이 매우 높다.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글 김보름(KOICA 국민소통실 인턴기자)·사진 LG전자
카툰 홍세훈 작가



LG전자의 두바이 서비스 법인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우수교사 및 학생들

"에티오피아처럼 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가에서 KOICA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 현지에서도 관심을 갖고 바라본다. LG전자는 기업이고 국제개발협력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KOICA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졸업식 때 한국어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현지 직업훈련청 관계자들도 매우 고마워한다. 특히 1년에 2번 정도 산업에 적합한 최신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서비스 명장*이 방문하는데, 배울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 반응이 매우 좋다. 우수학생들과 교사들을 LG전자의 두바이 서비스 법인으로 보내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신 기술 학습 외에도 손님을 대하는 방법 등 우리나라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보고 인상적이라고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서비스 명장** : LG전자의 제품 수리를 하는 서비스맨 중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주는 칭호.

Q_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초창기 건축 과정에서 주어진 시간이 개교까지 6개월뿐이라 빠듯했다. 개교 후에도 예산을 더 투자해 보수와 증축을 1년 정도 더 진행했다. 학생들 취업에 있어서는 처음엔 산업이 빨리 발달하니 인력 수요가 클 것이라 예상했는데,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현지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자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술을 가진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후 현지의 크고 작은 기업들로 많이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을 찾을 때 현지 주재원의 역할이 컸다."

Q_KOICA IBS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를 설명해 달라. 사업하며 느낀 IBS 사업만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보다 현지에서 도움이 된다. 에티오피아처럼 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가에서 KOICA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 현지에서도 관심과 중요도를 갖고 바라본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 사업의 안정성과 타당성에 관해 임직원들의 신뢰도가 높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LG전자는 기업이고 국제개발협력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KOICA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Q_이번 '에티오피아 직업기술대학 운영사업'이 LG전자와 에티오피아 상생발전에 각각 어떻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는지?

"에티오피아에서 운영 중인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가 최고의 직업훈련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 본 사업이 목표했던 대로 현지 젊은 청년들이 개인의 자립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술 인재로 자라나길 바란다."

Q_진행 중인 IBS 사업의 향후 계획 및 목표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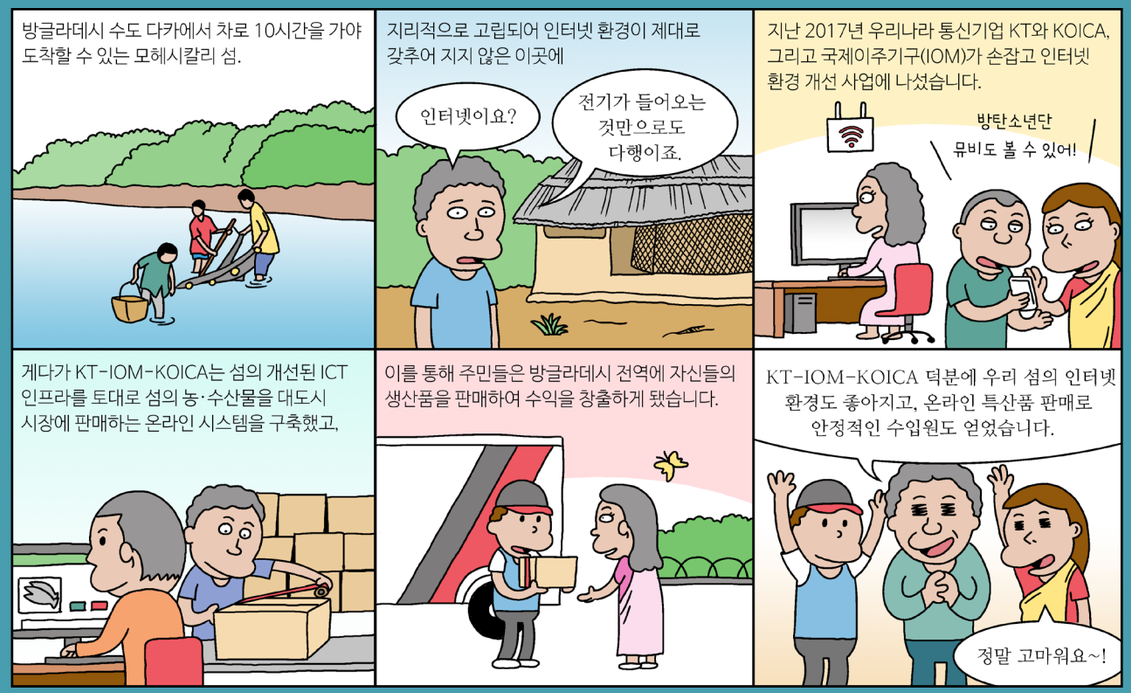
"우선 2020년까지 3년간 사업을 통해 학교 운영 고도화가 목표이다. 장기적으로는 산학협력 확대로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자 한다."

Q_KOICA IBS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한마디 한다면.

"고민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KOICA 담당자들과 상의하기를 추천한다. 오랜 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방글라데시 오지 모헤시칼리섬에 인터넷 통신망 구축**

KT-IOM-KOICA 드림팀, 섬 주민 소득향상 돕다



사업 주도 KT-IOM-KOICA 담당자들

"IT 파워로 전자상거래 유통망 구축 특산물 24시간 내 배송도 구현"

2017년 방글라데시 정부는 ICT를 활용해 빈곤퇴치·취업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쏟은 결과,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29%의 성장률(2014년 대비)을 기록했다. 다만, 수도 다카에서 차로 10시간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오지인 모헤시칼리섬에 사는 25만 명의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꿈같은 이야기였다. 이에 KOICA(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와 KT, IOM(국제이주기구)은 섬에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해 거주민들이 더 넓은 세계와 소통하고,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업을 담당하는 하이나 대리(KT 지속가능경영기획팀), 채숙희 담당관(IOM), 김기현 대리(KOICA)를 만나 사업 내용을 들어봤다.

글 이은주(KOICA 국민소통실 인턴기자)·사진 KT, 국제이주기구
카툰 홍세훈 작가

Q_KOICA와 KT, IOM이 진행하고 사업은 무엇인가?

"우리는 현재 방글라데시 모헤시칼리섬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업 비즈니스 기회창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시장 접근이 어려운 섬 주민들이 대도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수산물 판매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

Q_모헤시칼리섬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웠다고 들었다.

"모헤시칼리섬은 제한적으로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됐지만, 정부가 보급한 컴퓨터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통신기업 KT가 2017년 '기가 스토리(GiGA Story)*'라는 사회공헌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KT는 육지와 섬 사이에 장거리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설치해 인터넷 연결 대역폭을 충분히 확보했다. 섬 내부에는 유선통신 인프라를 확보해 섬 안 곳곳에서 인터넷 연결을 가능케 했다. 마을회관은 공공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IT 스페이스'로 변모시켰고 태양광 설비도 설치해 전기가 끊기지 않고 지속적인 통신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

*기가 스토리(GiGA Story) : 기가 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하여 도서, 산간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KT의 사회공헌사업 명칭. 국내에서는 2014년 10월 임자도, 대성도, 백령도, 청학동, 교동도, 평창까지 총 6곳에서 운영 중이며, 방글라데시 모헤시칼리 섬을 시작으로 해외에서 사업 범위를 확장함



Q_ICT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중 전자상거래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섬에는 현재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섬 주민들은 외지에 있다 보니 교육과 의료복지 접근성이 낮았는데 인터넷 환경이 개선되면서 화상교육, 모바일 진료 등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섬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소득창출이 필요했다. 섬의 특산물인 말린 생선, 소금 등은 싸고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생산단위가 영세하고 상품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운송수단 또한 부족해 농민들의 시장 판매 기회도 제한됐으며, 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중간상에게만 판매가 주로 이뤄지다 보니 생산자들이 제값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농민들과 육지의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통망을 구축하고, 생산물의 브랜딩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Q_전자상거래 유통망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생산자가 자신의 생산품을 웹사이트(http://amardesheshop.com)에 등록하면 방글라데시 전역의 소비자들이 이 상품을 주문하고, 주문된 상품은 전자상거래 물류센터에 고용된 청년들이 직접 생산자를 방문해 취합한다. 물류센터는 IT 스페이스* 내 위치해 있으며 여기서 상품의 저장과 포장도 이뤄진다. 포장까지 마친 상품은 방글라데시 사회적 기업인 ADAG(Amar Desh Amar Gram)의 유통채널을 통해 방글라데시 전역으로 배송된다."

*IT스페이스 : 층은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및 농업 교육 공간, 2층은 지역주민을 위한 IT교육장과 문화공간으로 구성

Q_생산물의 브랜딩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보지 않은 상품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거나 혹은 주변인의 추천에 의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먼 곳에서 배송되는 식품에 대해서 의심이 많다. 방글라데시 내에서 배송 시 음식을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 보존제나 포르말린과 같은 화학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 때문에 모헤시칼리섬의 특산품을 홍보할 때 '우리는 화학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상품이다'를 강조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

Q_그런데 아무리 믿고 먹을 수 있는 상품임을 강조해도,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는 결국 눈으로 보지 않고 상품을 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 부분 역시 ADAG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모헤시칼리섬의 특산품을 주로 판매하는 지역은 다카에 있는 부촌지역이다. ADAG 측이 그 지역에 직접 팝업스토어를 열어 운영하면서 ADAG에 대한 소개와 모헤시칼리섬의 특산품을 직접 홍보했다. 또 부촌이다 보니 새벽에 조깅을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ADAG 구성원들이 이들과 함께 조깅을 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어떻게 결제를 하는지, 특산물이 얼마나 신선한지를 직접 보여주면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Q_유통판로를 개척하고 소비가 늘면서, 생산물의 생산량이나 품질 향상도 필요했을 것 같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가?

"마케팅으로 판매량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 프로젝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모헤시칼리 농산품의 품질을 높여 구매력을 자극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구매력이 높고 지역 특산품으로 유명한 말린 생선은 생산 과정에서 다량의 소금과 보존제를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품질향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모헤시칼리 농산품에 사용되고 있는 농약과 보존제의 패턴을 조사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농사법이나(적정기술) 최대한 적은 양의 화학약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트레이닝을 리서치를 바탕으로 제공 할 계획이다. 또한 다카 물류창고로 배달 된 농산품이 각 가정으로 배송되기 전 품질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과학기술연구위원회와 함께 농산품의 화학약품 사용도를 검사할 수 있는 실험 컨설팅을 요청하였고 관련 실험방법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두 가지 활동을 통해 보다 좋은 상품이 제공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01
좌측부터 김기현 KOICA 대리, 채숙희 IOM 담당관, 이남순 KOICA 혁신사업실장, 하이나 KT 지속가능경영팀 대리, 송현준 KT희망나눔재단 담당자

02
방글라데시 모헤시칼리섬 전자상거래 사이트 메인화면

03
방글라데시 모헤시칼리섬 IT스페이스에서 교사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있다

04
금융포용과 소득증대에 대하여 설명하는 KOICA 김기현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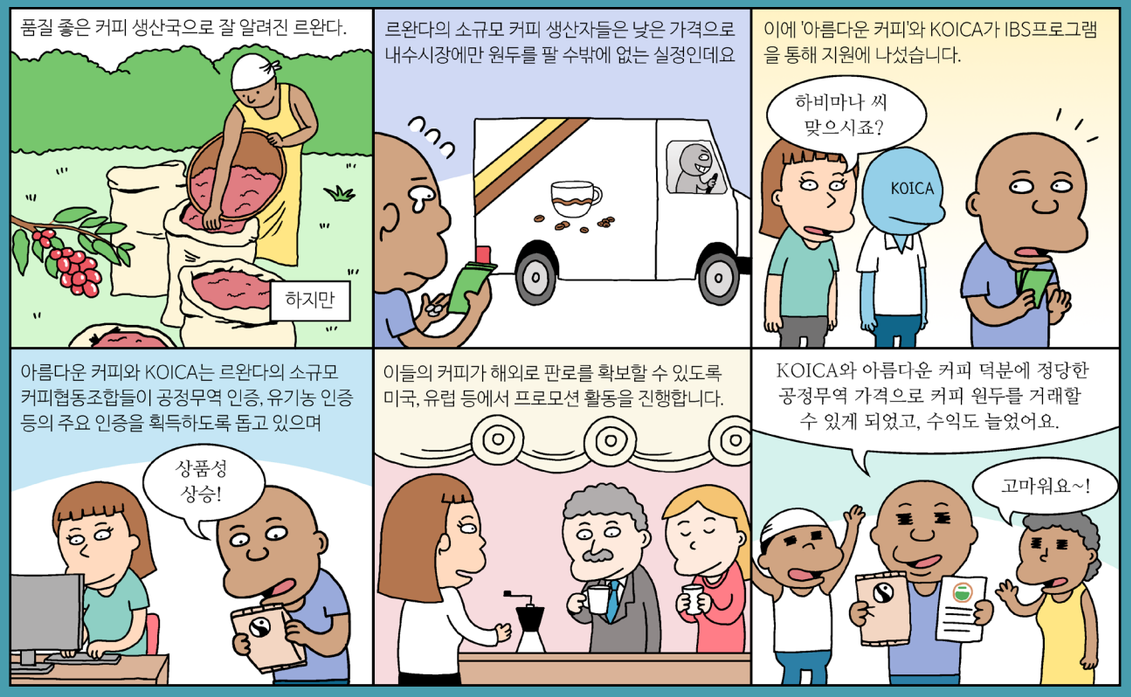
Q_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ADAG는 방글라데시 전역에 60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말린 생선이 주력 상품이나, 앞으로는 다른 특산품의 유통도 60개 센터 모두에서 확장할 생각이다."

Q_사업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 주민의 금융포용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모헤시칼리섬 주민들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되어 있었고, 소득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무지한 상태였다. 방글라데시 시중 은행인 뱅크아시아는 섬 안에 은행 지점을 만들어 주민들의 금융활동과 기존 금융시스템 내 안전한 합류를 돕고 있다. 우리는 유통채널을 확대해줌으로써 섬 주민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모든 사업을 통해 모헤시칼리섬의 주민들은 부수적인 수입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얻은 소득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 르완다 커피 산업 발전 돕는 '아름다운커피'
공정거래 위한 해외 판로 개척, 현지 커피 농부에게 향 짙은 웃음을



김다영 아름다운커피 생산자파트너십 팀장

"공정한 환경 조성해 소득 창출 개도국 빈곤퇴치에 일조해야죠"

식사 후 디저트로, 졸음을 깨기 위한 음료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 커피. 르완다에서는 질 좋은 커피를 생산하고 있으나, 소규모 농부들의 비즈니스 역량 부족으로 정당한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아 개도국의 수익창출과 빈곤퇴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와 아름다운커피가 IBS 프로그램을 통해 손을 잡았다. 르완다 커피협동조합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 및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해, 더 나은 가격으로 커피를 판매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 사업과 관련해 김다영 아름다운커피 생산자파트너십 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여지은(KOICA 국민소통실 인턴기자) · 사진 김다영 아름다운커피 생산자파트너십 팀장
카툰 홍세훈 작가

아름다운커피의 '르완다 커피협동조합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팅 역량강화 사업'은
KOICA 웹진 〈지구촌가족〉 2018년 9월호 'ODA 알아보기'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webzine.koica.go.kr/201809/content2_6.php?code=201809_010206

Q_아름다운커피는 어떤 기업인가?

"아름다운커피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은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자 재단법인이다. 2002년 수공예품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최초로 공정무역을 시작했으며, 2006년 '히말라야의 선물'이라는 공정무역 커피를 한국에 알리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하는 커피, 초콜릿 등을 정당한 공정무역 가격으로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해 소외된 개발도상국 소규모 생산자들의 빈곤퇴치에 기여하며, 국내외 윤리적 소비를 확대해 사회적 가치를 비즈니스로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Q_아름다운커피 '르완다 커피협동조합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팅 역량강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한 소개를 해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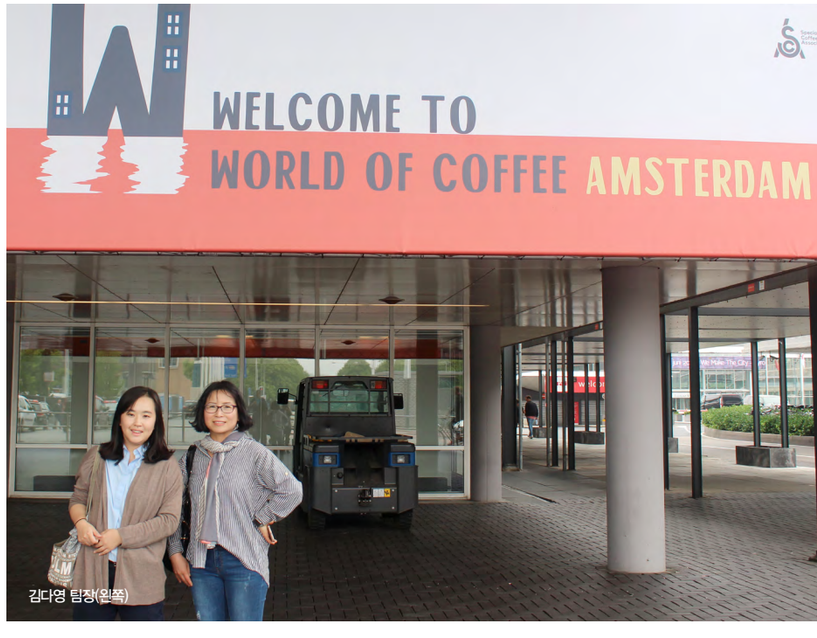
"이 사업은 좋은 품질의 커피를 생산하면서도 품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내수시장으로밖에 판매할 수 없는 소규모 농부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협동조합이 해외 바이어들과 더 나은 가격으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이들의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고, 주요 인증을 획득하여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름다운커피가 직접 르완다 커피를 구매해 한국과 르완다에서 상품으로 판매하고, 다른 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소규모 커피협동조합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시장에 진출하여 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Q_1차년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2016년부터 현지에서 사업 발굴조사를 시작해 2017년에는 실제 아름다운커피 스스로 자체적인 소규모 파일럿 사업을 진행했으며,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IBS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첫 해인 올해에는 현지에 영리법인회사(Beautiful Coffee Rwanda Ltd.)를 설립해 소규모 협동조합 네 곳을 지원하는 활동부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들 협동조합의 커피가 현지 내수거래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되는 것이 사업의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미국과 유럽의 스페셜티커피협회 등을 방문해 커피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협동조합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역량강화 코칭도 함께 이뤄졌다. 공정무역 인증(Fairtrade Label)과 열대우림 인증(Rainforest Alliance Certification), 유기농 인증(Organic Certification) 등을 받아 더 좋은 해외 시장을 직접 찾을 수 있도록 교육했으며,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필요조건들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한국 커피 박람회(Cafe Show Seoul) 등에 방문하여 르완다 커피를 알리고 프로모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Q_KOICA와의 업무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KOICA는 IBS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함께 동 사업을 기획하고 발굴했으며, 아름다운커피가 르완다 커피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상품을 구매해 한국에서 신규 커피 상품으로 론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름다운커피가 한국 커피시장에 르완다 커피를 프로모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내 · 외 네트워크를 지원했다. 아름다운커피는 현지에서 발굴한 네트워크를 통해 르완다 커피가 더 좋은 구매자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다영 팀장(왼쪽)

Q_사업의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지난 6월, 유럽 스페셜티커피 박람회에서 르완다 커피협동조합의 커피가 처음으로 테스트 및 시연되는 자리를 가졌다. 소규모 협동조합의 커피들은 아직 해외 시장에 한 번도 진출한 적이 없어 바이어의 평가를 직접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는데, 프로젝트 첫 해에 본 박람회에서 좋은 상품으로 평가되고 피드백을 얻은 것은 뿌듯한 성과였다. 또한 올해 하반기 1차 연도를 마무리하며 사업대상 커피협동조합 모두 공정무역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더욱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Q_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사업대상 커피협동조합들이 아름다운커피와 KOICA가 자신들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에 힘을 많이 얻는 모습들을 보았다. 처음 사업계획에서는 주요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소규모의 기자재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실제 인증을 받고자 준비하면서 필요한 기자재가 훨씬 크게 늘어나게 되자, 협동조합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검토하고 아름다운커피와 KOICA에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먼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지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깊은 인상으로 남았다."

01
커피열매를 협동조합 워싱스테이션(Washing Station)에 판매하기 위해 방문한 농부
01
커피품질검사 '핸드소팅(handsorting)' 작업 중인 노동자들
02
커피 박람회에 참석한 아름다운커피 관계자들과 르완다 커피협동조합원들


02



03

"아름다운커피가 한국 커피시장에 르완다 커피를 프로모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지원했다. 아름다운커피는 현지에서 발굴한 네트워크를 통해 르완다 커피가 더 좋은 구매자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01

Q_향후 사업 계획 및 기대하는 바에 대해 말해달라.

"향후 사업대상인 르완다 소규모 커피협동조합들이 공정무역 인증 등 주요 인증을 획득해서 더 많은 바이어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무엇보다 판로가 단일한 내수시장밖에 없고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부채 등에 시달리는 소규모 농부들이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하고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르완다 커피협동조합들은 품질 잠재력이 높고 시장을 찾을 의지를 갖춘 커피협동조합으로, 르완다에서 작은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 협동조합이 소규모 커피농부인 조합원을 위해 일하고, 지역사회에까지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